

주의 수난 성지 주일

기도서 275면 (B해)

제1독서 : 이사 50, 4-7

제2독서 : 필립 2, 6-11

복음 : 마르 14, 1-15, 47

금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흥보국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과월절 음식을 나눌 땅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마련된 큰 이층방을 보여줄 터이니 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하고 말씀하셨다
(마르코 14, 14-15).

□ 강론



나의 모습

양재철 신부

오늘은 주의 수난 성지주일로써 성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나무가지 축성과 행렬, 그리고 수난복음을 중심으로한 미사전례 부분입니다.

미사전례에 있어, 예수님의 수난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의 죽음을 북상케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수난복음은 한낱 전설 얘기가 아닙니다. 더욱기 단순한 과거사건에 대한 역사기록도 아닙니다. 부활주일을 한주간 앞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현실고발이요, 예언사건입니다. 오늘 내 생활주변과 이 세상 안에서 현재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장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리는 현실적이 고도 생생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인간들 가운데 생활하시는 하느님의 삶과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과 우리들 사이에 오늘 이 순간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언하여 줍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며, 반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지를 말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 하나 하나의 모습들이 오늘 복음말씀 안에 빠짐없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이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수난복음을 들으면서, 복음말씀 안에 나타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습과 무슨 역할을 하고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이나 역할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긴 대사제들의 모습으로, 혹은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과 역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쳐대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지...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가는 키베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고백하는 백인대장의 모습이 아닌지를 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봉헌기도 처럼 “주여, 독생성자의 수난으로 주의 용서를 가까이 느끼게 하소서.” 하고 기도드립니다.

(천주교 월명동교회)



어찌 될 것인가?

사건은 큰 사건이었다. 막혔던 봇물이 터지듯, 신문들은 앞을 다투어 전경환씨 사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밀 출국과 귀국에 즈음하여 지난 월요일자와 어떤 신문은 무려 다섯 페이지의 지면을 그 기사로 채우고 있다. 참으로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

이래저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지난 6년간의 총수입 액은 1,090억원이라 한다. 그리고 그간 세금처럼 거두어간 새마을 성금은 무려 256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거기다가 대한체육회 돈 16억원이 새마을과 관련되어 잘못쓰여졌고, 새마을신문과 새마을잡지 구매에 120억원이나 되는 정부예산이 잘못 지출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분명한 하나는, 이와 관련된 역대 내무장관들의 문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도 각양각색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관심은 전씨의 구속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그 촛점을 모아지고 있다. 설마 그럴리야 결대로 없겠지만, 그간의 작태로 보아서는, 또 소리만 요란하다가 말지는 않나 하는 의혹도 있다.

세계의 4대통신도 새마을 비리를 일제히 보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 접권당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사건의 폭로는 “실질적인 하야를 원치 않았던” 전 전대통령의 정치적 추종세력의 거세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 사건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처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될 사건임에 틀림없다.

금정이 산책

설주간을
알차게 :

☆ 성 주 간 (聖週間) ☆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아야 하리니,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으며, 그로써 우리는 구원과 자유를 얻었도다’(갈라디아 6,14)라는 성서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목상하는, 일년 중 가장 거룩한 시기인 성주간이다(성지주일부터 예수 부활절까지). 이 성주간 중 성목(聖木), 성금(聖金), 성토(聖土)요일을 성삼일(聖三日)이라 하여 특별히 거룩히 지내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친다.

성목요일: 이 날은 예수께서 당신의 살과 피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 주시고, 그분의 사제직을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오전에는 교구의 전 사제들이 주교좌 성당에 함께 모여 주교님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며 서품 때의 약속(정결과 순명)을 새로이 하고 일년 동안 사용할, 예비자 성유, 병자 성유,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한다. 교우들은 평생을 주님의 제단에 봉사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찬 미사 후 꾸며지는 무덤세례에 모셔진 성체를 밤새워 조배하며 그 안에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목상해야겠다.

성 금요일: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오후 3시, 또는 저녁에 거행되는 ‘십자가 경배 예식’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죄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하신 주님의 고통과, ‘나에게 지워진 매일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겠다.

성 토요일(부활 성야, 망부활(望復活)): 복음의 권유에 따라 신자들은 손에 촛불을 켜들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밤이다. 신자들이 참여하는 예절 중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며 뜻깊은 예절이다. 영영 떠나 버린 줄 알았던 주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면 제자들처럼,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맘껏 축하해야 할 밤이다. 부활절! 이는 믿지 않는 이들이나, 별다른 준비없이 맞이하는 이들에겐 그저 그런 날이겠으나 오로지 주님께 회망을 두고, 열심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온 믿는 이들에게는 연중 최고의 날인 것이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알렐루야’ 소리와 함께 구원될 자로서의 기쁨과 희망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 주님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저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찬미의 노래를 준비하자.

1988년도 가톨릭 무료 개안시술 사업에 대한 안내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200주년 기념 지속사업으로 무료 개안시술 3개년사업 제3차년도 계획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본 교구도 사회복지회에서 신청서 접수 중이니 종교에 관계없이 경제능력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어둠에서 살아가는 영세 실명자에게 “빛”을 찾아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료 수술 대상자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1종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전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영세민·극빈자) 실명자를 시술대상으로 하며 수술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① 양안 실명자(1안 수술을 원칙으로 함)
- ②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세대주
- ③ 사연이 떼해서 사회가 온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수술 질병의 종류

검안 결과 수술로써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질병이 수술대상이 됩니다.

- ①백내장 ②녹내장 ③각막질환(각막기증이 있을 경우

(각막이식에 한함)

3. 신청 절차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 ① 수술신청서(1호서식) — 사회복지회에 있음
- ② 안과의사의 접안 소견서
- ③ 주민등록등본

④ 영세민(극빈자) 증명 서류

⑤ 성직자 혹은 단체장의 추천서

서류접수는 일괄적으로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여 교구 사회복지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진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서류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전주 전동 2가 77)
전화 (0652) 84-5290

록 원

숯불갈비·냉면·양구이
전 문

전화 84-4181

서호진(프란치스코)

안팡자(루시아)

명동여관—조상례외과 중간

한 복

약통·무용·파티·결혼

고 려 주 단

전주시 고사동
(신혼예식장 골목)

전화 6-1902

전 광 원(마르코)

김 삼 례(소파아)

서법석 한의원

원장 서법석(풀레)

위치 : 대학교앞 덕진성당현

주소 :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전 72-2665 · 75-3533

전북의료보합조합 지정 김 안 과 의 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콘택트렌즈

원장 김 호 열
전 은 주
(베로니카)

전 주 코아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전화 85-3020



교 구 소 식

- * 성유축성미사 : 31일(목) 오전 11시, 장소—중앙천주교회
주례—박정일 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 * 주교님 성주간 일정 :
 - 주의 수난(성지)주일(3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여산천주교회
 - 설목요일(3월 31일)·성유축성미사(오전 11시)—중앙천주교회
만찬미사—성글리라·봉세수녀원
 - 설금요일(4월 1일 저녁 7시 30분)—수류천주교회
 - 설토요일(4월 2일 저녁 10시)—금암천주교회
 - 예수부활대축일(4월 3일 오전 10시 30분)—중앙천주교회
- 1. 성모의 기사회 4월모임 : 4월 9일 오후 1시 30분,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젊은이 성모의 기사회 : 4월 9일 오후 7시, 장소—효자동 천주교회
※ 4월 첫토요일은 성토요일 행사관계로 연기함.
- 2. 제12차 교구 울뜨레야 : 4월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해성학교 강당
※ 많은 참석 바람(참석율에 따른 본당별 시상있음)
- 3. 테클라 모임 : 4월 3일 오후 2시, 장소—성바오로서원 2층
주최—성바오로의 팔 수도회
- 4. 각 본당 사무장님께 알림 : 본당소식 원고는 매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고 내용은 간략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기(氣)가 막힌 세상

옛말에 잠(睡)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쳐도 천리라 했읍니다. 오늘도 월급봉투를 받았지만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아이들 학비에 맞추려니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또 임시경쟁에서 아이들을 이기기 하려면 무슨 방법이든 생각해내야 할텐데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는 어려움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신문을 펼치면 매일같이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그 모든 것이 다 살기 위한 싸움 때문에 빚어집니다. 이런 세상을 살려니 우리는 잠도 못이루고 지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녕 산다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한 처음 하느님께서는 세상 만들과 사람을 지으시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하느님과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아무런 가림도 짐승도 없었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그런 템 사람이 욕심을 부려 본수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부터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로운 질서는 깨어졌습니다.

욕심은 나만을 위하고 남을 무시하며 배척하게 만듭니다. 이런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고 서로 이기려다 보니 도략하고 사기치고 거짓을 전설인 양 꾸며냅니다. 또 그 때문에 사람 사이에는 증오·원망·분노의 벽이 갈수록 높아져 서로 통합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은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기(氣)란 본래 피와 함께 우리 몸을 돌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킵니다. 기가 잘 통하면 건강하지만, 막혀서 통하지 못하면 몸은 병들고, 병이 오래 가면 죽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한 몸처럼 통하는 세상은 건강하고 살기 즐거우나 그렇지 못한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벼랑을 향하여 내닫는 미친 말과도 같습니다.

그다면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세상을 통하여 하여 평화롭고 건강하게 만들겠습니까. 세상은 나 혼자, 내 가족끼리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걸 깨닫기 시작한 우리, 이웃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바로 우리부터가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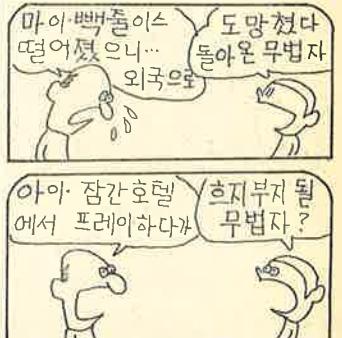
제12차 교구 울뜨레야



□ 때 : 4월 5일 오전 10시

□ 곳 : 전주 해성학교 강당

※ 참석율에 따라 본당별 시상있읍니다.



□ 1분 명상

기도로써

사람은 강해지고

하느님은

악해진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명동피부과의원

삼가 인사드립니다.

돌아가신 저희 모친 김소술(안젤라)의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위해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옛도와 마음씨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읊립니다.

창인동천주교회
서장경(안드레아) 올림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ドレス마镉·대여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② 8653

건축·신축·증축 기타일절

<면허업체>

국 철 환

(베드로)

전화 74-5206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종양)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설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의도

- 오늘은 주의 수난(성지)주일 : 단식제 권고
- 신설본당을 위해 2차헌금이 설시됩니다
- 다음주일은 예수부활 대축일입니다
- 공식 미사—주교님 집전
- 판공면담 : 아직 성사료 받지 못하신분, 오늘까지
- 병자 판공성사 : 29일(화) 오후,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 모임 : 제속령체회—오늘 오후 2시
사목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자모회—다음주일 오후 3시
- 중학생 하루 피정 : 오늘, 주제—나의 부활
- 부활성가연습 : 성가대 단원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1,153,360원 교무금 : 1,803,7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76-0961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오늘 불우이웃돕기 특별헌금 실시
25일 단식과 금요분

- 오늘은 애령주간 : 선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운영위원회—오늘공식미사후
- 사목회·길오회 : 차주 공식미사후
- 금성회 : 오늘 공식 미사후
- 금일회 : 29일 저녁 6시
- 성주간 전례안내 : 성목요일—저녁 8시, 성금요일—저녁 8시, 성토요일—저녁 10시(주교님 미사)
부활대축일—오전 6시, 오전 10시, 오후 3시(주일학교), 저녁 7시
- 교구 꾸르실료 울뜨레아 : 4월 5일 오전 10시
해성학교
- M·B·W 교육실시 : 4월 11일~4월 15일
매일 저녁 7시~10시 ※ 사목회임원·금성회·길오회·
금성회·도니카회·성가대·초중고교사·반장님 의무처
으로 참석 요청
- 판공성사 두락자 : 미사후에 보아주세요
- 금주복사 : 이창성·김명수 차주—이대용·정문영
- 금주봉헌 : 이진진 부부 차주—소원영 부부
- 미사안내 : 평화의 모후pr 차주—천사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714,140원 교무금 : 2,274,400원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설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 오늘은 주의 수난주일(성지주일) : 2차헌금 있읍니다
- 오늘의 모임 : 울뜨레아 모임—공식 미사후(성당)
진보회—공식 미사후, 사목회—오후 5시(사목회의실)
- 성삼일 안내
성목요일 미사—저녁 7시 30분, 미사후 성체조배—본
당 계시판 참고 바란
성금요일—오후 3시 십자가의길, 주의 수난예절—7시
30분(성지복구 회금있음)
성도요일—부활영세식 오후 3시, 부활전야 예절—저
녁 10시(초 준비하세요)
- 부활대축일 미사안내 : 4월 2일(토) 어린이미사 없습
니다. 중고 학생미사(8시30분), 공식미사(10시 30분)
주일학교 어린이미사(3시), 저녁미사(7시 30분)
- 병자봉선제 : 29일 오후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반장·구역장 모임 : 30일 오후 2시
- 부활영세자 집중교리 : 29일~4월 1일 저녁미사후
- 본당회합실 신축에 도움주신 분 : 고맙습니다
창조주의 어머니 pr-230,000원, 이명—25,000원
- 금주 본당대청소 : 창조주의 어머니 pr-4월 2일 11시
- 지난주 봉헌금 : 715,500원 교무금 : 972,5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손준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 오늘은 성지주일입니다

- 사순절 이웃돕기 2차헌금이 있읍니다
- 봉침체 희망자 : 사무실에 신청(29일—병자·노약자)
- 부활성가연습 :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성지복구를 위한 특별헌금 : 성금요일(4월 1일)
- 교구 울뜨레아 : 4월 5일 10시 해성학교

- 설3일 예절안내
①성목요일—주의 만찬미사—오후 7시 30분
②성금요일—오후 3시 십자가의길,
7시 30분—십자가 경배

- ③부활 전야미사—오후 7시 30분
④부활대축일 미사—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7. 모임 : 사목회, 애역회—오늘 공식미사후
청년연합회—오늘 오후 4시
애령회—차주 공식미사후

8. 청소 : 세례
9. 금주전례 : 해설—한기철, 독서—①강용준 ②김정숙
차주전례 : 해설—손태규, 독서—①최연조 ②전진준
- 지난주 봉헌금 : 258,880원 수요현금 : 21,360원
교무금 : 247,00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수녀원 4-1142 사목회장 소병율

1. 설목요일 최후만찬미사 : 저녁 8시(세족례)
성금요일 십자가에절—저녁 8시
부활성야 전례—2일 저녁 8시

2. 모임 : 요셉회 창립—오늘 미사후
대전회—미사후(회합실)
청년회 월례회—저녁미사후(강당)
3.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강당
4. 부활대축일 미사 : 10시 30분, 어린이—오후 3시
5. 감사합니다 : 정숙아 헬레나—가빠 기증
6. 매월 마지막주일은 나눔의날 : 1구좌 1천원
7. 금주 봉헌금 : 일자회선 어머니 pr—2일 오전 11시
8. 금주전례 : 해설—이기임, 김은식, 독서·기도—송진2반
- 지난주 봉헌금 : 324,050원 교무금 : 448,000원

(술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 오늘은 주의 수난(성지)주일입니다
1. 오늘의 모임 : 요한회—공식 미사후
 2. 판공성사 : 28·29·30일—오후 7시~9시
※ 김진석·김영일 신부님께서 수고하십니다
 3. 성체조배가 성목요일(31일) 오후 9시부터 성금요일(4월 1일) 오전 6시까지 단체별로 있음, 많은참석바랍
4. 2일 : 수녀회(오전 10시), 구역장회의(오전 11시)
 5. 누흘조아 미사시 자모회에서 커피쨈매
 6. 부활주일에 사용할 초콜릿·고등부에서 펌매함
 7. 다음주일 예수부활대축일 : 10월 반, 예비자 영세식이
공식미사중에 있으니 영세자 및 데부모께서는 9시까
지 성당에 나오세요
 8. 전신자 연수 : 주제—본당은 우리, 일시—5일 오전
9시 30분(3일 까지 사무실에 접수)
당일 미사시간은 오후 6시로 변경됨
 9. 금주 성당청소 : 화—출결하신 정녀, 토—매파의모후
 10. 미사안내 : 성아보탑, 차월—매파의모후
미사해설—이종상, 차월—김경주
 - 지난주 봉헌금 : 477,870원 교무금 : 655,5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홍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1. 꾸리아 월례회의 : 27일 오후 2시, 톰슨피아노학원
2. 병자영성체 : 28일 오전 10시
환자 모시고 계시는 가정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3. 판공성사 : 28일~29일 고백성사시간 오후 3시~9시
※ 저녁 7시~9시 존네신부님
4. 성삼일 예절에 참석하세요 : 31일(목) 주의 만찬미사
저녁 8시, 1일(금) 주의 수난예절 저녁 8시,
2일(토) 부활전야 저녁 8시
5. 제대회 임원개선 : 회장—임진섭(줄리아)
부회장—남혜식, 총무—이재남
6. 금년은 (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 신축현금 신입과
납부바랍니다
7. 부활계란 봉헌 : 각구역 2판이상 삶아서 예쁘게 그려
토요일 오전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8. 다음주 모임 : 사목회 월례회의
9. 성지순례 : 안나회, 87년 영세자(여성) 4월 3일까지
신청 선착순 접수. 준비물—미사도구, 겹침, 5,000원
- 지난주 봉헌금 : 560,540원 감사합니다